

# 한국정보산업연합회/타이트(주)

## - 수행내용

대구의 타이트라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,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사업분야로는 모바일 앱 서비스, 소프트웨어 개발, 온라인 마케팅, 교육 콘텐츠등이 있으며, 제가 실습을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아폴로 교육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. 회사 구성원은 경영지원팀, 연구개발팀, 홍보-마케팅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, 업무의 환경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방식의 업무 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회사에서 주로 수행하게 된 업무는 QA쪽이며 모바일 앱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회사에서 출시 할 교육스트리밍 앱을 모바일 기기로 테스트해보고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을 보고하고 개발자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.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발견한 결함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고, 또 제가 제시한 의견이 앱에 반영이 되었을 때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. 실습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부장님께서 JS를 학습하라고 하셨는데, JSFIDDLE을 활용하여 2학년때 배웠던 JS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JS뿐만아니라 React도 열심히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. 처음 실습을 진행하는 것 이라서 실습 전 긴장도 많이 되고 하였지만, 회사에 계신분들께서 모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 또한 실습기간 동안 실무를 경험함에 있어서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던것이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

## - 인턴십의 성과

한학기 동안의 현장실습기간 동안 여지껏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웠던 기간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저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IT분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고, 전공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우리 회사 개발자와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화상통화를 하며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으며,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업을 할 때 사용되는 Jira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모바일 앱 테스트를 해볼수도 있었습니다. 실무를 진행하면서 개발자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 하였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원이 서로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모바일 앱이 스토어에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.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IT분야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향후 제가 IT라는 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분야로 나아가는게 좋을것인지 제 자신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실습기간 동안 부족했던 모습을 어떤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

## - 인턴십을 수행하고 느낀 점

저는 어렸을때부터 IT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고등학교도 IT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있게 하기 위해서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. 이후 대학교에 진학을 해 학교생활을 하던 중 시기에 맞게 ICT학점연계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좋은 기회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인턴십을 진행하며 제가 이 IT라는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세부적인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인턴십 기간 중 회사의 이사님과 진로상담을 한적이 있는데,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, 이사님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려고 하기보다 웹 언어와 관련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게 좋고 웹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아가기 위해 웹 언어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준비할 것이며, 그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대비 하기위해 외국어공부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또 나중에 제가 회사에서 웹 개발자로 일을 하게되고, 경력을 쌓게 되어서 제가 인턴십기간동안 IT라는 분야의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았던 것 처럼 저도 꼭 나중에 인턴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고,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